

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

- - 정의 : 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
- - 전파경로 : 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
 -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
 -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
- 잠복기 : 1~14일 (평균 4~7일)
- 증상 : 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, 인후통, 두통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
- 치료 : - 대증 치료(수액 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)
 -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
- 예방 : - 올바른 손씻기
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 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
 - 기침 예절 준수
 -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
 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
 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출처 : 질병관리본부

코로나, 폐·심장·신장·소화기·미각·태아까지 광범위하게 파괴

WSJ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라오는 합병증은 그 어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. 콜럼비아 대학병원의 신장전문의 마야 라오는 “(코로나는) 너무나 많은 시스템을 타격한다”며 “우리는 (원인을) 이해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 의사들은 다른 어떤 바이러스 감염보다 코로나가 광범위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.

코로나는 폐렴과 급성 호흡 곤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뇌·신장·심장·혈관·소화기 등을 광범위하게 공격한다. 코로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비율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10~20% 정도로 추정된다고 WSJ는 전했다.

이로 인해 환자들은 갑작스런 뇌졸중, 폐색전증(혈전이 폐 혈관을 막는 것), 심장마비, 신장기능 장애 등을 겪게 된다. 또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발작과 환각, 미각 상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지난달 30일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임신 3개월 후 유산한 환자의 태반에서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했다.

폐에 염증이 생기면 혈중 산소 부족으로 흉부통증과 호흡곤란, 심박동 이상, 심장 조직 손상 등을 초래한다. 또 동맥과 대장 등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혈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아...평생 투석 받아야 할 수도

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찢터어리인 대량의 혈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. 이 때문에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과 폐색전증으로 고통받게 된다. 또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서 ‘사이토카인 폭풍(사이토카인이란 면역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)’을 일으키게 된다.

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49%가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과 폐색전증 등을 겪었다. 이런 환자들의 사망률은 다른 코로나 환자들에 비해 5.4배 높았다. 이는 일반적인 독감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다. 심지어 뉴욕의 44세 환자의 경우 혈전용해제를 투입했는데도 혈액 응고 작용이 계속됐고 결국 오른쪽 마비 증상이 일어난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다.

코로나로 뭉친 큰 덩어리의 혈액은 뇌졸중과 폐색전증을 일으키지만, 아주 작은 혈전은 모세혈관으로 퍼져 나가 온몸 곳곳의 혈액 순환을 막아버린다. 그 결과 일부 환자들은 고통스럽고 푸르스름한 부종인 ‘코로나 발가락’병을 앓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. 급성 신부전의 원인도 혈전으로 의심되고 있다. 모세혈관 내 혈전으로 신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. 이 때문에 일부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의사들은 전했다.